

* 인턴이 되기까지

“저는 평소 스페인어 학습에 관심이 많아서 스페인어 공부와 스페인 언어와 문화 관련 글과 기사를 많이 읽었습니다. 그 경험이 미술 작품을 제작할 때 많은 영감을 주기도하고 생각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스페인어는 어디까지나 취미이지만, 정말 애정있게 열심히 공부해서 무엇보다도 “잘하고싶다” 이런 마음이 컸습니다. 국민대학교에는 스페인어과가 없어서 정말 여러가지로 한국에서 스페인어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라면 언어교환, 화상강의, 단발성의 모임 등을 어떻게든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무모하다고 할 수 있을만큼 폭빠져서 스페인어를 공부하기위해 휴학도 한학기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DELE B2레벨의 자격증을 한번에 뺏기 때문에 한학기를 휴학한 투자가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페인어를 잘 하게 될 무렵, 어학연수라든지, 유학이든 해외관련 프로그램을 너무나 하고 싶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20년부터 22년까지 거의 정지되어 대학생활이 아쉬웠습니다. 프로그램이 아예 없지는 않았지만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고, 실제로 해외에 가게 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기가 힘든 상황일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에, 저는 학업을 이어나가는 것과 졸업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스페인어 공부를 놓지 않았고 또 코로나 시기에 이동시간이 줄은만큼 그 시간을 스페인어 공부에 투자하였습니다.

마지막 학기에 우연처럼 국제교류팀에 중남미 해외파견인턴쉽 프로그램이 올라와 있어서 바로 신청을 하였고 외교부에서 4가지 기사 번역시험(영한,한영,서한,한서)와 스페인어로 면접시험을 보고 최종합격하여 외교부에서 최종파견후보자로써 추천서를 써주었고 니카라과 WFP에서 수락메일을 보내어 최종합격하였고. 니카라과에 파견되어 유엔기구인 세계식량기구에서 인턴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 페루 대사관에 작품 소장이 되기까지

“저는 스페인어권 국가중에 페루의 문화에 빠졌기 때문에 페루의 문화와 관련된 것을 작품에 녹여내고 싶었습니다. 야외조각의 특성인 공공성 또한 고려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볼 때 기분이 좋게, 거부감 없이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동물조각을 만들기로 정하였고 동물은 알파카로 정하였습니다.

저는 단순히 알파카 동물의 형태를 만든 것이 아니고, 작품의 동기는 엘 니뇨 현상으로 인한 중남미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뭄과 홍수등 기후변화에 관한 우려를 동화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미

숯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야외조각이라는 특성상 밖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비바람을 견디고 다른 사람들의 견드려도 쉽게 파손되지 않을 만큼의 내구성이 요구되었습니다.

저는 재료를 정할 때도 도자기로 정하였습니다. 우선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비바람을 잘 견디고 내구성의 경우에는 지름을 두껍게 만들어 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작품자체가 환경보전, 기후변화에 관한 우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레진, 폴리코트 같은 건조시간도 짧고, 쉽게 만들 수 있고 내구성 또한 좋지만, 저는 화학적인 물질을 쓰고 싶지 않아서, 비록 일하는 과정이 무척 고생스럽더라도 친환경적인 도자기를 재료로 정하였습니다.

6월 19일에 전시 오프닝 이후 WFP 파견 인턴십 준비를 병행하는 중에 7월 10일에 파견 최종 후보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파견이 확실시 되어 작품을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다가 주한페루대사관에 제 작품이 있게 된다면 상징적인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메일을 어떤 직원이 읽을 줄 몰랐기 때문에, 작품 설명까지도 스페인어와 한국어 두 언어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메일을 7월 23일 일요일에 보냈는데 다음날 대사관측에서 바로 전화가 와서 일정을 조율하고 26일에 작품이 주한 페루 대사관 관저로 가게 되었습니다.” 작품이 가는 것은 기증의 절차를 밟았고, 소정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대사관은 사실상 그 나라의 영토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알파카들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사관측에서도 학교로 작품을 가지러 올 때 대사님이 직접 오셔서 작품을 전달하는 사진을 찍고 페루대사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도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인스타그램 링크

<https://www.instagram.com/p/CvLkDemyiuC/?igshid=YTUzYTFiZDMwYg==>

페이스북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FLBwv6U1oty3V5NthXvacr6ocsF5N2RKWVqPmeXWKtq5L76jRCFY3jgKi62oiGS5l&id=100064571750688&mibextid=ZbWKwL

7월 27일에 페루 대사관에서 한국-페루 수교60주년과 페루 독립 202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포시즌스호텔에서 하여서 초청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각국에 있는 페루대사관에서 torito(토리토(황소)라는 페루의 전통 공예품을 각국의 스타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중이었는데, 마침 대사관 측에서 제가 대형 알파카 도자기를 가지고 대사관측과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대사관에서 한국스타일의 torito를 저에게 제작해달라는 부탁이 와서 수락했고 출국일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도자기의 특성상 건조시간 때문에 상당히 계획을 잘세워야했고 작품제작에 많은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자했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작품이 잘 완성되어서 8월 21일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날 대사님이 안계셔서 문화부서 담당자님이 시간이 가능한

날 사진촬영을 하자고 요청하여서 28일 기념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Torito의 전시는 11월 예정이라고 합니다.